

박사과정 진학 희망자의 특성 분석

이은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목 차

1. 연구의 목적
2. 조사 개요 및 분석 설계
3. 분석결과
4. 제언

< 요약 >

본 연구는 방송대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재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박사과정 진학 의향과 그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박사과정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65.2%가 진학 의향을 보였으며, 이들은 40-50대, 남성, 수도권 거주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진학 동기로는 '전공 역량 심화', '공부의 즐거움', '경력 관리' 등 내적 요인이 두드러졌고, 장애 요인으로는 '업무 병행의 어려움', '논문 작성 부담', '학비 부담'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현재 대학원 교육 만족도와 박사학위 가치 인식은 진학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박사과정 설계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연구역량 개발, 유연한 학사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학제도와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또한 진학 동기 및 가치 인식 수준에 따라 자아실현형, 전문성심화형, 경력전환형의 세 수요층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이들에 맞춘 맞춤형 운영전략을 제언하였다.

1. 연구의 목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은 2001년 특수대학원으로 개원하여 4개 학과 200명의 정원으로 출발하였으며, 2013년에는 경영대학원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학사 운영과 학습자 확대를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일반대학원에 2,954명, 경영대학원에 372명의 재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방송대는 원격대학으로서의 교육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2022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에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모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방송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방송대 내부에서도 박사과정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5년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0명 중 163명(65.2%)이 방송대에 박사과정이 신설된다면 진학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단순한 관심 수준을 넘어, 실제로 박사과정에 대한 구체적 수요와 준비 의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이에 본 통계보고는 방송대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박사과정 진학 희망자와 비희망자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그 특성과 요구를 비교한다. 특히 박사 진학 동기, 학위의 가치 인식, 진학의 장애 요인, 그리고 박사과정 설계 시 중요하게 여기는 제도 요소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추론통계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방송대 박사과정 신설의 방향성과 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및 분석 설계

조사 개요

- 본 통계보고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다. 조사는 대학원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 학업 경험, 진로 계획, 박사과정 진학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일반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통계보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대학원 실태조사 결과는 데이터허브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 조사 문항은 학업 동기, 정보 획득 경로, 학습 시간과 방식, 교육과정 만족도, 졸업논문 계획, 박사과정 진학 의향, 진학 동기와 장애 요인, 박사학위의 가치 인식, 박사과정 설계에 대한 기대 요소,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 총 6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이 중 ‘박사과정 진학과 관련된 문항(문항 32-61번)’과 ‘진학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력, 전공, 직업, 소득 등 배경 변수(문항 62~67번)’, 그리고 ‘현재 대학원(석사) 학업 만족도 관련 문항(문항 20~31번)’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박사과정 진학과 관련된 문항’을 통해 진학 희망 여부, 진학 동기, 진학 시 장애요인, 박사학위가 갖는 가치에 대해 질문하였다. 진학 희망 여부는 예, 아니요, 잘 모르겠다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진학 동기는 진학 동기 별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1), 동의하지 않음(2), 보통(3), 동의(4), 매우 동의(5)의 5점 척도를 통해 질문하였다. 박사학위 가치 인식은 대학원생들이 박사학위가 갖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산업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 1, 중요하지 않음 2, 보통 3, 중요한 4, 매우 중요함 5)로 질문하였다.

□ 분석 대상 및 분류 기준

- 본 분석보고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전체 대학원생 중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일부(7.5%)의 응답에 기반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전체 설문 응답자는 252명이었으며, 이는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재학생 3326명(2025학년도 1학기 기준)의 7.5%에 해당한다. 설문 응답 252명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지속적인 동일 응답과 같이 신뢰성 떨어지는 사례를 제외하고, 유효 응답자 수는 250명으로 결정되었다.

- 250명의 유효 사례 중 박사과정 진학 의향 문항(문항 3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단이 구분된다. 박사과정 대학 진학과 관련된 분석은 진학 희망자와 진학 비희망자 두 집단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집단 구분을 통해 박사과정 진학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인식과 요구 차이를 분석하였다.

■ **진학 희망자**(163명, 65.2%): “방송대에 박사과정이 신설된다면 진학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자

□ **진학 비희망자**(33명, 13.2%): “진학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자

■ **진학 희망 미결정자**(54명, 21.6%):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자¹⁾

□ 분석 방법

-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7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항목별 또는 하위 요인별 평균 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결과 해석 시에는 유의확률, 평균 차이, 오즈비(odds ratio) 등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에 필요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기술통계 분석: 응답자 배경 특성, 응답 문항별 빈도 및 평균 파악
- ▷ 교차분석: 성별 등 배경변인에 따른 박사과정 진학 희망률의 차이 분석
- ▷ 로지스틱 회귀분석: 박사 진학 희망 여부(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예: 가치 인식, 만족도 등) 탐색
- ▷ 잠재 수요층 시나리오: 진학 동기, 학위 가치 인식, 직업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 잠재 수요층 시나리오 유형을 분류

1) 박사과정 진학 희망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례는 명확한 비교군 구분이 어려워 본 분석보고의 주요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향후 잠재적 유입 집단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음

3. 분석 결과

□ 응답자 일반 특성 요약

- 본 조사에 응답한 전체 250명 중 박사과정 진학 희망자는 163명(65.2%), 진학 비희망자는 33명(13.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54명(21.6%)이었다.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5.6%, 여성이 54.4%였으며, 연령대는 40대가 32.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대(32.0%), 30대 이하(24.0%) 순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유형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최종 학력은 일반대학 학사학위(40.8%)와 복수 학사/석사 이상의 고학력자(45.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같은 특성은 방송대 대학원생이 주로 성인 학습자이며, 다양한 사회경험과 교육 배경을 가진 집단임을 시사한다.

□ 배경 변인과 박사과정 진학

- 전체 응답자, 박사과정 진학 희망자, 비희망자의 특성을 종합하면, 비교한 결과, 진학 희망자 집단은 남성, 40·50대, 일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사회계열 전공자, 사무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성별 및 연령대별 박사과정 진학 희망 비율

	구분	전체 (N=250)	박사과정 진학 (구분 집단 내 비교)	
			희망 (N=163)	비희망 (N=33)
성별	남	114 / 45.6%	78 (68.4%) ²⁾	16 (48.5%)
	여	136 / 54.4%	85 (62.5%)	17 (12.5%)
연령대	30대 이하	60 / 24.0%	39 (65.0%)	10 (16.7%)
	40대	82 / 32.8%	49 (59.8%)	9 (11.0%)
	50대	80 / 32.0%	56 (70.0%)	10 (12.5%)
	60대 이상	28 / 11.2%	19 (67.9%)	4 (14.3%)

- 응답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박사과정 진학 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진학 희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2 참조)³⁾. ‘100만 미만’은 사례 수가 적기는 하나 가장 높은 진학 희망 비율(83.3%)을 보였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서 75.0%로 높은 진학 희망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경제 수준과 진학 희망 간의 관계에 대해 실시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x^2=2.87$, $df=6$, $p=0.825$).

책정된 등록금 수준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수준은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재정 지원보다 다른 요인들이 진학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래 박사과정 진학의 장애요인 인식에서도 학비부담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더 크게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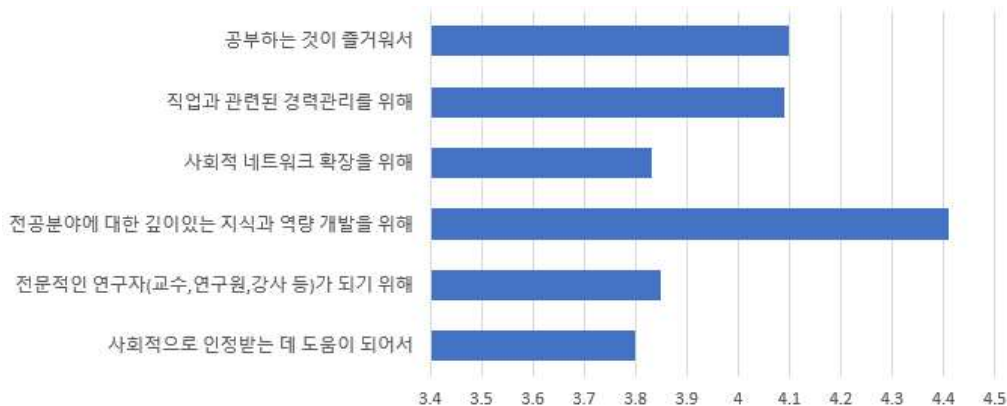
<표 2> 경제적 수준별 박사 진학 희망 비율

	구분	전체 (N=250)	박사과정 진학 (구분 집단 내 비교)	
			희망 (N=163)	비희망 (N=33)
가구 월평균 수입 구간	100만원 미만	6 / 2.4%	5 (83.3%) ⁴⁾	1 (16.7%)
	100만원 이상 200만 미만	17 / 6.8%	11 (64.7%)	1 (5.9%)
	200만원 이상 300만 미만	40 / 16.0%	30 (75.0%)	4 (10.0%)
	300만원 이상 400만 미만	42 / 16.8%	28 (66.7%)	5 (11.9%)
	400만원 이상 500만 미만	25 / 10.0%	16 (64.0%)	3 (12.0%)
	500만원 이상 600만 미만	27 / 10.8%	17 (63.0%)	3 (11.1%)
	600만원 이상	93 / 37.2%	56 (60.2%)	16 (17.2%)

2) 괄호 안 비율은 구분 내 해당 집단 내에서의 진학 희망 또는 비희망 비율임
 3) 수입 구간 중 600만원 이상에 응답한 비율(37.2%)이 높고 낮은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어, 향후 대학원 관련 조사에서는 수입 구간에서 수입이 낮은 구간은 그 수를 줄이고 수입이 높은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4) 괄호 안 비율은 구분 내 해당 집단 내에서의 진학 희망 또는 비희망 비율임

□ 박사 진학 희망 동기와 장애요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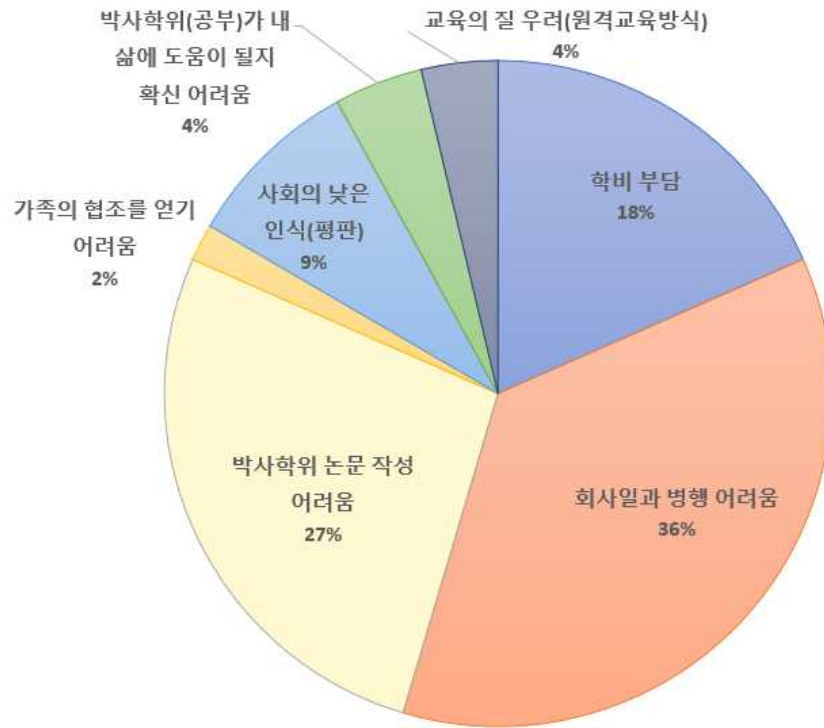
- 본 조사에서 박사과정 진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재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진학 동기와 진학 시 우려되는 장애 요인**을 분석하였다. 진학 동기 관련 문항(문항 33~38) 평균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역량 개발(4.41점)**, **공부 자체의 즐거움(4.10점)**, **경력 관리(4.09점)**를 주요 진학 동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인정(3.80점)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3.83점) 등 외부적 요인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박사 진학은 외적 보상보다도 **내적 동기와 학문적 성장 욕구에 기반함**을 보여준다.



[그림 1] 박사과정 진학 동기 정도(5점 척도)

- 이러한 내적 동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장애 요인들이 진학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박사과정 진학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되는 장애 요인으로는 **‘회사 업무와 병행의 어려움’(59명)**, **‘박사학위 논문 작성의 부담’(44명)**, **‘학비 부담’(30명)**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사회적 평판’, ‘가족 협조 부족’,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 등의 응답도 있었으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2] 참조).
- 이러한 결과는 박사과정 진학 희망자가 지닌 동기와 현실적 장벽 간의 간극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아실현과 학문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실제 진학 과정에서는 시간적·경제적 여건 및 논문 수행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박사과정 설계 시에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수업 운영, 연구역량 개발 지원, 장학금 확충 등 현실**

적인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박사과정 진학 시 가장 우려되는 장애요인

□ 박사 진학 희망 예측 요인

- 대학원 재학생들의 박사과정 진학을 예측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진학 희망 여부**(문항 32)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현재 대학원 교육 만족도**(문항 20-31) 평균 점수와 **박사학위 가치 인식**(문항 58-61) 평균 점수를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수 모두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교육 만족도의 오즈비(odds ratio)는 1.51, 박사학위 가치 인식의 오즈비는 1.14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각각의 점수가 1점 상승할 때 박사 진학 희망 확률이 약 1.5배, 1.14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 대학원 교육 만족도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 내용, 교수와의 관계, 행정 서비스, 졸업 논문 지도 등 다양한 하위 항목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이 지표가 높을수록 현재의 학업 경험이 긍정적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석사과정에**

서의 만족도가 박사 진학에 대한 준비 의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 박사학위가 갖는 가치에 대하여, 설문응답자들은 박사학위에 대한 가치를 개인적 가치(M=4.5), 사회적 가치(M=4.2), 산업적 가치(M=4.2), 경제적 가치(M=3.9) 순으로 인식하였다. 대학원생들은 박사학위의 개인적 가치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고, 경제적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박사학위 가치 인식이 박사과정 진학 희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박사학위의 사회적·개인적·경제적·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진학 희망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학위 자체의 상징성보다는 박사학위가 갖는 실질적 효용성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결론적으로, 박사 진학 여부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나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되기보다, 현재 석사과정에 대한 긍정적 학습 경험과 박사학위에 대한 가치 있는 전망이 결합될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향후 박사과정 운영에서 ‘학습자 중심의 만족도 기반 학사운영’과 ‘학위 가치를 실감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함께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인들이 느끼는 박사학위의 가치는 사회적 영향도 받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신설할 때 사회적 수요와 가치에 대한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4. 제언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대 박사과정 설계에 있어 다음 두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특성과 방송대 입학 희망자들의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제도 설계이며, 둘째는 잠재 수요층 유형에 따른 맞춤형 운영 전략이다.

□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박사과정 설계

- 방송대 박사과정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진학 의향이 있는 재학생들은 전공

역량의 심화, 공부의 즐거움, 경력 관리 등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박사과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정이나 네트워크 확장과 같은 외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사과정이 단순한 학위 취득이 아니라 **학문적 성장과 자아 실현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따라서 방송대 박사과정은 학문적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심화된 전공 교육 중심의 커리큘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전공 세미나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관심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연구 주제를 장려하고, 직무 연계형 과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한편, 박사 진학 시 가장 우려되는 장애 요인으로는 ‘회사 업무와 병행의 어려움’, ‘박사학위 논문 부담’, ‘학비 부담’이 지적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이 필수인 만큼, 논문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 연구 지도 강화, 논문작성 지원 워크숍,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부터의 코칭 체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방송대 대학원 박사과정은 **유연한 학사 운영**이 수립되어야 한다. 주말 집중 수업, 온라인 세미나, 계절제 운영 등을 통해 재직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제도 및 외부 연구 펀딩 유치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학문적 동기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박사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체계와 직장인 학습자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송대 박사과정은 학문적 깊이와 실용성을 갖춘 유연한 구조로,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박사과정 수요층 시나리오 유형

- 본 분석보고는 박사과정 진학 희망자들의 진학 동기와 박사학위에 대한 가치 인식 수준을 기반으로, 잠재 수요층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사과정 도입 시 학습자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맞

층형 제도 설계와 운영 전략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시나리오 유형은 단순 응답 분포가 아니라 정량적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다. 진학 동기(문항 33-38)와 박사학위 가치 인식(문항 58-61)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인식 기반 행동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수요층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은 특성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명명되었으며, 분포는 **자아실현형** 45명(27.6%), **전문성심화형** 22명(13.5%), **경력전환형** 96명(58.9%)이다.

A. **자아실현형** (27.6%)

박사학위의 개인적·사회적 가치 인식이 높고, 자아성취 중심의 내적 동기를 지닌 집단

이 유형은 박사과정을 통해 자기만족, 자아성장, 학문적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집단이다. 주로 학위의 개인적 의미를 중시하며, 진학 자체를 인생 목표의 연장선으로 인식한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많으며, 교육·법률·상담 등 공공성과 연계된 분야의 경력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B. **전문성심화형** (13.5%)

직무 및 실무와 연계된 진학 동기가 뚜렷하며, 학위의 실용적 가치에 주목하는 집단

실무 전문성 강화, 경력 고도화, 전문 자격 취득 등의 목적을 중심으로 박사 진학을 고려한다. 주로 중간관리자, 기술직,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며, ‘경력 관리’, ‘연구 역량 강화’ 항목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들은 박사학위를 이후의 강의, 자문, 기업 교육 등 실용적 진로와 연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C. **경력전환형** (58.9%)

진학 동기와 학위 가치 인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삶의 전환점에서 진학을 고려하는 집단

전체 진학 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은퇴 이후 또는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진로 탐색을 위한 목적이 크다. 학문적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 접근이 많고, 진학 동기와 인식이 분산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유연한 학사 운영, 입문형 비교과 프로그램, 진학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50~60대 이상과 여성 비율이 비교적 높다.

<표 3> 박사과정 잠재 수요층 유형별 주요 특성

유형	주요 동기	가치 인식	정책 제안 방향
자아실현형	자아성취	높음	연구중심트랙, 자기주도 학습
전문성심화형	경력관리	중-상	실무연계트랙, 성과중심 운영
경력전환형	인생전환	다양함	유연한 학사, 입문형 비교과 운영

- 이러한 박사과정의 다양한 수요층을 살펴봄으로써, 박사과정 도입 시 일괄적 모집 및 운영 전략을 넘어서 **학습자들의 수요에 맞는 학과 개설, 연구 혹은 실무 중심 과정 개발 등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요층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면, 박사과정 도입 시 획일적인 모집 및 운영 전략에서 벗어나 학습자 수요에 맞춘 트랙 설계 및 교육과정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 각 수요층 유형에 적합한 접근 방식과 운영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전공별 박사과정 진학 희망

- 응답자들이 속한 전공을 기준으로 박사과정 진학 희망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학과별 응답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전공은 학문적 배경과 진로 방향을 가장 밀접하게 반영하는 요소로, 박사과정과 같은 고등학위 진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설명력이 있는 변수이다. 향후 박사과정 진학과 관련하여 대학원 재학생 전수조사가 실시된다면, 전공별 박사과정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4> 전공별 박사과정 진학 희망자 및 비희망자 분포

대학원 및 학과	전체	박사과정 진학	
		희망	비희망
문예창작콘텐츠학과	11	8 (72.7%)	2 (18.2%)
실용영어학과	20	17 (85.0%)	0 (0.0%)
실용중국어학과	12	9 (75.0%)	2 (16.7%)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5	4 (80.0%)	0 (0.0%)
일본언어문화학과	8	5 (62.5%)	2 (25.0%)
법학과	7	7 (100.0%)	0 (0.0%)
행정학과	8	5 (62.5%)	1 (12.5%)
영상문화콘텐츠학과	5	3 (60.0%)	1 (20.0%)
사회복지학과	19	11 (57.9%)	5 (26.3%)
농업생명과학과	18	14 (77.8%)	1 (5.6%)
생활과학과	12	8 (66.7%)	1 (8.3%)
정보과학과	21	12 (57.1%)	3 (14.3%)
에듀테크학과	8	4 (50.0%)	0 (0.0%)
통계·데이터과학과	15	7 (46.7%)	3 (20.0%)
환경보건시스템학과	5	2 (40.0%)	2 (40.0%)
간호학과	9	5 (55.6%)	0 (0.0%)
평생교육학과	16	9 (56.3%)	3 (18.8%)
청소년교육학과	5	3 (60.0%)	1 (20.0%)
유아교육학과	5	3 (60.0%)	1 (20.0%)
경영대학원	33	25 (75.8%)	3 (9.1%)

* 응답자 수가 적은 학과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에 유의